

## I. 들어가며

擇里誌는 李重煥의 현존하는 유일한 저서로 1751년에 저술되었는데 한국 지리학과 역사학의 고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택리지 필사본의 서명이 20여 개에 이르고 필사본의 종류는 더욱 많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의 필사본이 생긴 경우는 다른 저서에서 발견하기 힘들다. 외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전해 내려 온 택리지는 아직도 그 원본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필사본의 이름과 종류가 생겼는지 등의 핵심적인 의문을 간직한 채 독자를 끌어 당기고 있다.

이중환과 그의 저술 과정, 그 후의 사정을 밝혀주는 자료는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 이들에 관하여 후세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글을 다소 남긴 사람이 있으니 이는 星湖 李翼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익의 서문이 담긴 택리지 필사본을 비교 분석하여 이에 관련된 이익의 글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익의 택리지 서문은 현재 필사본 3종에서 발견되는데 이들을 다른 본과 비교하여 고찰하는 일은 중요하다. 한 번도 진지하게 연구되지 않은 이 필사본은 택리지 저작을 둘러싼 의문점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어느 필사본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이익의 글을 재조명하는 이유는 이 글들이 택리지에 관한 문제를 푸는 데 아직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 이익의 글이 부분적으로 확대 해석된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검토하여 이 글들이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려는 의도에서이다.

이 글은 이익의 서문이 달린 필사본 중 이익이 서문을 썼을 당시에 가까운 시기에 전사되었을 필사본(이하 星湖本)을 가려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 성호본을 光文會本과 비교하고 東國地理를 참고하여 차이를 파악한 후에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익의 글과 함께 고찰해 보기로 한다. 성호본을 광문회본에 비교하는 이유는 광문회본이 1912년에 출간된 활자본으로 20세기 후반부터 한글 번역의 저본으로 애용되어 현대인에게 가장 익숙해 있고 학자들의 연구에도 제일 많이 쓰여져 왔기 때문이다. 광문회본은 사민총론, 팔도총론, 평안도로 시작하는 8도, 북거총론,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총론의 항목을 붙여 본문을 나누었고 이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광문회본에 나오는 항목명을 써서 그 내용을 지칭하기로 한다. 동국지리해는 택리지의 한 필사본인 東國地理의 한글본으로, 그 제작 연도가 18세기 후반기로 추정된다(허용, 54). 이 한글본은 택리지가 처음 저작되었을 때부터 반 세기 이내에 필사된 것이어서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보이는 변형이 적을 것으로 사려된다. 필사 연대가 체계적으로 추정된 다른 택리지 필사본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하고 신빙성 있는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이다.

## II. 선행 연구와 문제점

이익의 글에 의거하여 택리지 필사본에 대한 연구물을 가장 처음 발표한 분은 金約瑟로 보인다. 이 글에서 그는 이익이 手寫했다는 택리지 필사본과 이익의 편지 한 통을 소개했다. 이익의 서문으로 시작하는 필사본을 지금부터 40년 전에 처음 발견하여 이를 발표한 것은 택리지 연구에서 획기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 필사본이 “辛未年”(1752년)에 필사된 “星湖手寫本”으로 명명된 점(金約瑟, 69), 즉 택리지의 전사 시기와 전사자를 지목한 데에는 문제가 있다. 신미년에 쓰인 서문 내용이 택리지 본문 앞에 놓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서문 말미의 내용은 이 필사본의 서문과 택리지 본문이 같은 해에 쓰였다는 것을 보장하는 근거로는 부족하다. 필체에 대해서 언급도 없으니 이익이 스스로 필사했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좀 더 깊고 열린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김약슬의 글에 소개된 편지는 1752년 7월27일에 이익이 쓴 것으로 택리지 저작 후 일어난 일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 편지의 일부분을 여기 소개한다.

…數卷書 謹受故留 此類都不無觀也 其中一局吾家人所著 向者 諸家作序 改其標題 爲擇里志 又取其錯誤十餘 改擇有刪正

그런데 이익의 편지 내용을 근거로 개진된 주장 중에는 다시 신중하게 편지 내용을 해석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중환이 택리지를 완성하고 나서 이익에게 비평과 교열을 요청했고 이익은 택리지를 읽고 10여 개의 착오를 산정해 주었다고 단언한 논문(吳星, 97)이 출간되었고, 이익이 이중환의 저작물의 이름을 택리지로 고치고 10여 개의 착오를 산정해 주었다는 것을 이 편지에서 말했다는 글(I. C. Yoon, 1998 a. 167; 1998 b. 13)도 발표되었다.

이익의 편지에서 해석의 문제가 된 부분은 諸家作序 改其標題爲擇里志 又取其錯誤十餘改擇有刪正이다. 다시 자세히 보면 이 글에서 주어는 ‘諸家’만 드러나 있어 ‘諸家’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은 모두 ‘諸家’가 한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 편지만으로는 이익이 표제를 택리지로 바꾸었으며 그 착오 10여 개를 취해 고치고 산정했다고 할 수 없다.

이중환의 저작에서 발견된 착오를 이익이 고치고 산정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이 편지 이외의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혹시 성호본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성호본이 위의 언급된 착오들이 고쳐지고 삭제, 수정된 본으로 밝혀진다면 성호본은 이중환의 저술에 이익이 직접 개입하여 개작한 것을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이익이 이중환의 저작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III. 성호본의 확인

### 1. 이익의 擇里誌序와 성호본

이익은 택리지서에서 “지금 우리 輝祖가 글을 모아서 완성했는데 수천 마디 말이 士大夫가 살 곳을 구하려는 것이다. 그 사이에 산맥과 수세, 풍토와 민속, 재물의 생산과 수륙 운수에 관해서 지극히 조리있게 정리되어 있는 바 이런 글은

아직 본 적이 없다.” 하며 이중환의 저작을 칭찬하였다. 그리고 이 서문을 기록하여 책머리에 두어 어린 손자가 살펴 보게 하겠다고 끝 맺었다. 서문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다.

今吾家輝祖纂成一書 縷縷數千言欲求士大夫可居處 其間山脈水勢風氣氓俗 財賦之產水陸之委輸 井井有別 余未曾見也 余老將死如… 自不覺撫躬增嗟 錄此卷首留 使小孫諦看 辛未仲春 星湖書

서문 끝에는 신미(1751) 중춘이라고 써여 있는데, 이로써 이익의 서문은 지금까지 그 저작시기가 알려진 택리지 서문과 발문 중 가장 먼저 쓰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이익의 서문은 필사본 3종에서 발견되는데, 고려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擇里誌 (신암 B10 A3A)와 八域要覽 (내제:卜居說, 신암 B10 A3H),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있는 東國八域誌 (고서 III 4294)가 그것이다. 이 중 이익이 택리지서를 썼을 때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전사되었을 필사본을 가려보기로 한다. 우선 이 세 본의 구성과 분량을 일별하면, 항목 구별이 없는 것은 세 본 다 동일하나 고대 소장본 택리지만 분량이 적다. 즉, 총론 부분이 없고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도 분량이 적은 것이다. 팔역요람과 동국팔역지는 광문회본과 같은 구성으로 총론이 포함되어 있고 내용과 분량이 광문회본과 거의 비슷하다.

택리지는 내제 “擇里誌”에 이어 이익의 서문과 본문이 따르는데, 팔역요람은 이익의 서문이 본문 끝에 있다. 이익이 쓴 서문을 그 당시 전사된 택리지에 붙였다면 본문 앞에 오도록 했을 것이다. 서문은 저자에게서 공식적으로 청탁을 받았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자리에 놓일 것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팔역요람을 성호본으로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동국팔역지는 내제 “東國八域誌” 다음에 “擇里誌序”를 제목으로 하여 이익의 서문이 이어지나 서문 끝머리에 “星湖” 두 자를 누락시켜 누가 썼는지 밝히지 않았다. 사민총론 다음에는 경기도 읍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한 장에 써 넣었다. 이는 다른 본에서 가끔 발견되는데,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사려된다. 본문 끝에는 이중환의 발문이 있다.

성호본은 세 필사본 중 擇里誌일 것으로 간주된다. 성호본에 이익의 서문만 있고 저자의 발문이 없는 것은 성호본이 찍여졌을 당시 상황에 잘 부합된다. 이익이 자기가 序한 때를 辛未仲春으로 밝혔는데 이는 이중환이 아직 자신의 발문을 쓰지 않았던 때이다. 택리지라는 표제명 또한 이 필사본이 성호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이는 이익이 신미년 7월27일에 이익이 보낸 편지에서 택리지라는 표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 2. 성호본 중 비교 대상 부분

성호본의 본문은 광문회본과 같은 순서로 배치되어 있으나 항목으로 나뉘어지지 않아 항목 제목이 없다. 또한 총론이 없기 때문에 산수로 끝난다. 여기서는 성호본의 본문 중 사민총론과 곧 이어지는 팔도총론, 평안도와 함경도, 복거총론, 생리 부분을 택하여 광문회본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사민총론은 전체의 서론이고 팔도총론은 八道の 도입부로 각 도를 서술하기 전에 있다. 복거총론 역시 도입부로 살 터를 잡는 데 있어 네 가지 지표 즉 지리, 생리, 인심, 산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선택된 부분에는 택리지에 들어 있는 도입부가 모두 포함되고 팔도 중 2개 도와 네 지표 중 실용적 관점이 두르러지는 ‘생리’가 포함되어서 이들만 분석해 봐도 성호본과 광문회본이 어떻게 다른지가 충분히 드러날 것으로 사려된다.

우선 두 본에서 위에 언급한 부분을 뽑아 비교해 본다.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하여 이런 차이들이 생겼는지를 가늠해 보는 일은 그때그때 지적하기로 한다. 즉, 각 부분의 차이가 저자에 의해 생긴 것인지, 전사자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 또한 그 전사자가 이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그 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 IV. 성호본의 비교 연구 결과

##### 1. 사민총론

성호본의 사민총론은 ‘李子曰’로 시작하는데 이 문구가 광문회본에는 없다. ‘李子曰’은 필자가 조사한 필사본 중 20종에 가까운 본의 사민총론 첫머리에서 발견되나 필사본 20여 종에는 없다.<sup>1</sup>

李子在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두 가지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중환의 저술을 받았을 때 이익 자신이 전사했든지 아니면 이익이 제자나 族子를 시켜 그가 보는 앞에서 전사하게 했다면 재종손인 이중환을 가리켜 이자라고 했을 리는 없다. 李子는 대학자인 李滉을 지칭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익은 자신의 글 李子粹語의 自序에서 退溪子李子라 하여 퇴계가 자신이 흠모하는 선생으로 모시는 것을 다시 드러낸 바 있다.<sup>2</sup>

사민총론 첫머리의 ‘李子’를 李滉으로 받아들일 경우 李子在 한 말은 古無士大夫皆民也에 그치겠다. 필자는 아직 이 말을 이황의 글에서 찾지 못했다. 그리고 이중환이 이황에게 특별한 정을 품었다든가 하는 증거도 없다. 이중환의 유일한 저서로 남아있는 택리지에서 이황은 예안을 언급할 때, 서원을 언급할 때, 유성룡이 배운 학자로 간단히 언급될 뿐이다.

성호본이 이익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전사되었을 경우에는 전사자가 저자를 지칭하며 이 문구를 썼을 것으로 사려된다. 사민총론에서 ‘李子曰’ 대신에 ‘靑華子曰’이나 ‘李徽祖曰’이라고 쓴 필사본이 세 본 있다.<sup>3</sup> ‘靑華子曰’로 시작되는 필사본(擇里誌 고대 B10 A3A)에서 서명 다음에 靑華子李重煥著라고 쓰인 것을 보면 전사자는 이중환을 저자로 인식했고 ‘靑華子曰’로 시작함으로써 저자가 서술한 내용을 써내려간다는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 세

<sup>1</sup> ‘李子曰’로 사민총론 부분이 시작하는 필사본은 다음과 같다.

士大夫可居處 국립 古 2700-105, 擇里誌 장서 B15AB 2, 擇里誌 규장 일사古 915.1Y58t, 擇里誌 고대 B10A3, 八域可居誌 연대 고서 III 1841, 八域可居處 장서 K2-4191, 八域誌 고대 B10 A3M, 擇里誌 고대 신암 B10 A3A, 擇里誌 고대 B10 A3A, 擇里誌 연대 고서III 4301, 擇里誌 장서 B15AB 2B, 八域記 국립 한古朝 60-67, 東國八域誌 연대 고서III 4294, 震維勝覽 규장 奎7732/ 상백 古 915.1 J563, 震維勝覽 국립 古 2700-98, 震維勝覽 규장 奎4790, 震維勝覽 국립 한 古朝60-74, 震維勝覽 장서 B15AB16.

<sup>2</sup> 星湖先生全集 권 50 李子粹語序

<sup>3</sup> 徽祖의 徽는 輝의 오자이다.

종의 필사본이 저자를 지칭하면서 사민총론을 시작했다고 해서 20종에 가까운 필사본의 ‘李子曰’이 이중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앞으로 더 숙고할 여지가 있다.

李子曰’ 이외의 차이는 字 수준이다. 商과 賈의 치환이 가장 많이 보이는데, 성호본의 爲農爲工爲商, 爲農工商不恥, 其爲士爲農爲工爲商의 ‘商’을, 광문회본에는 ‘賈’로 썼지만 뜻에는 차이가 없다. 또한 성호본에 기재된 禮儀文章은 광문회본에 儀章으로, 氣質有賢愚의 ‘氣質’은 ‘氣稟’으로 표기되었다. 이외에 어조사를 포함하여 삭제, 첨가 또는 치환된 외자들이 있는데, 의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 팔도총론

두 본의 팔도총론 내용은 거의 같으나 字의 치환과 광문회본에서 누락된 단어가 발견된다. 寧古塔背後抽一脈爲朝鮮山脈支首의 ‘一脈’이 광문회본에서는 ‘一枝’로 되어 있고 秦初爲燕人衛滿所逐의 ‘初’가 광문회본에서는 ‘時’로 되어 있다. 성호본에는 慶尙卽古新羅眞韓弁韓地인데 광문회본에는 신라가 없고 변한, 진한의 순서로 되어있다. 이 구절에 이어 전라도를 설명하며 두 본에서 백제를 먼저 언급한 것을 보면 광문회본에 들어가야 할 신라가 누락된 것이 확실하다. 唐兵棄地撤歸의 ‘唐兵’도 광문회본에는 누락이 되었다. 이상에서 팔도총론에서는 두 본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광문회본이 출판될 때 두 단어가 누락된 것을 알 수 있다.

## 3. 평안도

성호본은 평안도에서 광문회본과 많이 다른데, 곧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분량이 광문회본에 비해서 매우 적다는 사실이다. 이는 광문회본에 나오는 여러 고사 하나도 없고 언급된 지역도 매우 제한되었고 이 외에 광문회본에 보이는 내용이 성호본에 없거나 축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성호본에 없는 부분

성호본이 광문회본과 다른 부분 중 가장 자주 눈에 띄는 것인데 다음이 생략되어 있다.

#### ㄱ. 고사

연광정에 얽힌 고사 즉, 고려 시인 김황원이 연광정에서 시상이 막힌 일, 명의 사신 주지번이 天下第一江山를 써 현판을 만들어 건 일, 청황제가 丁丑年에 퇴군 하다가 이 현판의 ‘天下’ 2자를 톱질하도록 한 일이 그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벽루 고사, 즉 명종 때 허봉이 벗들과 잔치를 벌였을 때 평양감사가 기생들을 잡아들여 방해를 했는데 후에 이를 조롱하는 春遊浮碧樓歌를 지어 보복했다는 이야기다. 평양감사 朴燁의 고사, 즉 광해군의 신임을 받아 발탁되어 10년이나 평양감사로 있던 박엽이 신의를 지키려다가 인조반정 때 죽임을 당한 이야기다. 또한 칠불사 고사와 최영과 이성계의 위화도 고사가 성호본에는 없다.

ㄴ. 평안도 여러 곳의 위치와 유래 설명들이다. 대동강의 수원에서 부벽루에 이르

기까지 거치는 읍들, 유명한 정자, 누각, 사찰 명승지 등의 언급과 서술이 성호본에 없다.

ㄷ. 청천강 이북과 이남의 지형이 다른 것을 성호본에 기술하지 않았다.

ㄹ. 전해 오는 말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하는 말이 광문회본에만 있다. 즉, 평양에 주몽시대 고적이 많다는 언급 다음에 보이는 “전해 오는 말에 거짓이 많아 믿을 수 없다”는 부분이 성호본에 없는 것이다.

## 2) 성호본에만 있는 부분

성호본은 평안도 전체를 통틀어 “평안도는 북쪽으로 여진에 접하여 풍속이 무예를 중히 여기고 글 배우기를 소홀히 한다.” 했으나 광문회본은 이런 식으로 도 전체의 풍속을 설명하지 않았고 여진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본의 팔도총론에는 “평안도는 심양과 이웃으로 닿아있고 함경도는 여진과 이웃...” 이라고 소개하여 함경도를 여진에 짝 지은 바 있다. 그러므로 평안도를 여진에 접한다고 한 것은 이미 한 진술에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범한 것이 된다. 이 부분은 동국지리해에도 없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이중환이 범한 오류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익이 여진으로 바꾸어 썼거나 이익이 아닌 필사자가 여진으로 잘 못 필사했을 가능성은 아주 낮기 때문이다.

## 3) 성호본에 약술하거나 생략한 부분

성호본에는 패수 유역을 가리켜 “...개울과 못이 적어...기장이 많이 난다.” 하여 발농사로 나는 곡식 중 기장을 언급하였다. 광문회본에는 이에 상응하는 부분에 “...제방과 개울이 적어 발농사만 일삼는다. 하류에 있는 벽지도는 강 북편에 자리하여 강물이 줄면 진흙 땅이 드러나는데 지방 사람들이 그 안에 논을 만들어 1묘에 1종을 거둔다.” 하여 논농사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서술했다.

성호본에는 평안도의 산물에 대해서 “산읍에서 담비와 인삼이 나고 해읍에서 생선과 소금이 난다.” 로 약술하였으나 광문회본에는 지역의 특성을 여러 면에서 들어 상술했다. 즉, “검산령...북쪽 강계부에서 인삼이 산출된다.” “서쪽으로 바다 가까운 고을에 조수를 막아 논을 만든 곳이 많다. 그러나 논이 밭보다 적은 도의 쌀 값이 삼남보다 항상 비싸다. 사람들이 뽕과 마를 심어 베를 짠다. 생선과 소금은 아주 귀해서 해변에 위치한 고을이라도 소금을 굽는 곳이 많지 않다. 이 지방에서 대나무, 감, 닥나무, 모시는 나지 않는다.” “청북은 지대가 매우 높고 추우며 북쪽 국경과 가까워 꽃이 피지 않아 과일이 없고 산물이 아주 적다.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구차하게 산다.” 등이다.

## 4. 함경도

함경도도 광문회본과 많이 다른데 우선 그 분량이 광문회본에 비해서 적다. 그러나 평안도와 다른 차이도 있다.

## 1) 성호본에 없는 부분

광문회본에 나오는 고사가 없고 지역 묘사,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서술도 없다.

### ㄱ. 고사

함흥차사 이야기로 태조의 동리 친구 朴淳이 새끼 딸린 암말을 궁밖에 매어 울도 록 하여 아버지 된 주상의 심경에 호소하여 태조를 감동하게 하였으나 다음 날 오전 중 용흥강에서 박순이 배에 탈 때 군사가 추적하여 박순의 목을 베었다. 이를 슬피 여긴 태조가 상경한다는 이야기가 성호본에 없다. 곧 이어지는 안변부 석왕사에 얽힌 고사, 즉 태조가 등극 전 서까래 세 개를 등에 지고 꽃이 날리며 거울이 깨진 꿈을 무학이 해몽한 고사도 성호본에 없다.

### ㄴ.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

안변 서북쪽 덕원 경계에 있는 원산촌에서 바닷길로 6진을 통해 큰 도회로 된 창고를 설치하여 북도에 흉년이 들 때 백성을 구휼하게 했다

### ㄷ. 지역 묘사

안변 동남쪽 황룡산에 용추, 천석이 빼어나고 산 남쪽에 흡곡현이 있다는 등이다.

## 2) 성호본에 잘못 쓰인 글자

이중환의 五代祖 이계손이 함흥감사로 준수한 소년을 뽑아 글을 가르쳐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있었던 일을 가리켜 罷天荒으로 썼다. 광문회본과 다른 본에는 破天荒으로 되어 있다.

고전에서 罷天荒으로 쓰는 예는 찾아 볼 수 없는데 이는 저자의 실수일 수도 있으나 원문을 읽고 그 음가를 기억하여 전사할 때 동음이의 자로 썼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이익이 전사했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 5. 복거총론

어조사가 빠진 것 외에는 광문회본과 동일하다.

## 6. 생리

### 1) 同音異意 글자나 類似音 자

不爲妻子之倫의 爲가 광문회본에는 有로, 功名은 空名으로 기재되었다. 이들은 의미에 그다지 큰 차이를 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광문회본에서 實用에 反하여 쓴 空名이 성호본에 쓰인 功名보다 더욱 강한 대조를 나타낸다. 동국지리해에는 “세상의 허명만 힘쓰고 실사를 등진지...” 로 되어 광문회본과 가깝다.

### 2) 성호본에 없는 부분

광문회본의 故人不能無陰惡而陽善에서 성호본은 無와 而가 없다. 이는 전사자의

실수일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저자나 이익은 여기 無가 없으면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호본에 忠淸則內浦及車嶺以北 사이에 車嶺以南 沃瘠相參半 而其最沃者多不過種一斗收六十斗 자가 없다. 이것 역시 전사자의 실수일 것으로 판단된다. 연결된 글에 車嶺이 두 번 나오니 한 줄을 건너 전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가 다른 필사본에도 발견된다.

경상도의 김해 칠성포를 서술하는 중 “경상도 전체의 수구에 있어 남북으로 바다와 육지의 이익을 다 차지하고 관청이나 개인이 모두 소금을 판매하여 큰 이익을 얻는다.” 는 부분이 성호본에는 없다.

### 3)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

한양 주위의 물길 서술부터 두 본은 큰 차이를 보인다. 글의 분량은 비슷한데 내용이 다른 경우는 한양 주위 물길 서술에서 처음 보인다. 성호본은 주로 한강 물이 어디서 합쳐지고 어느 지역을 거쳐 바다에 이르는지, 어느 지역까지 조수가 통하는지를 상당한 길이에 걸쳐 단순하게 서술하는 데 주력했다. 지류로 청주강, 춘천강, 祖江, 북한강, 寶輦江, 후서강 등을 들었고, 강을 따라 광주, 교하, 장단, 임진, 용산, 서빙고, 마포, 토정, 양화, 개성, 승천포, 평산, 강암, 강음 梨浦, 餞浦 등을 들었는데, 이 중에서 광문회본에 나오는 강은 후서강 뿐이고 지명은 용산, 마포, 토정, 개성, 승천포, 강음 정도이다.

광문회본은 지역의 특성을 역사적으로 설명했다. 고려 때에는 임금의 행차가 용산호에 머물러 연꽃을 구경했었는데 한양으로 도읍이 정해진 후 용산호 서편 염창 사구의 붕괴로 용산호가 조수에 통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또 이어서 그로부터 3백여 년간 계속된 한강의 퇴적현상으로 염창 사구가 막히게 될 것을 걱정한다. 이러한 지형 변천의 역사적 기술과 설명, 장래를 예견하는 내용이 성호본에는 없다.

성호본에 서술된 경제활동으로는 물길 덕분에 언급한 여러 지역이 수운의 이점이 크다는 정도이다. 광문회본에는 소수의 지역을 선택하여 다각적으로 서술했다.

이상 성호본과 광문회본에서 선택된 항목의 내용 차이를 알아 보았다. 동시에 이런 차이점이 누구에 의해서 생겼는지 필사자를 밝히는 수준에서 고찰해 보았다.

## V. 비교 결과로 밝혀진 성호본의 성격

이상 광문회본, 동국지리해와의 비교 조사에 근거하여 성호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을 수 있다.

성호본은 그 분량이 광문회본이나 동국지리해보다 훨씬 적다. 성호본은 광문회본나 동국지리해보다 분량이 적은데, 이는 고사, 여러 지역 묘사,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 등에 대한 서술과 총론이 없기 때문이다.

성호본은 星湖手寫本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다. 성호본에는 글자가 빠졌기 때문에 문맥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고 저자나 이익에게 친숙했을 중요한 용어가 오자로 치환된 부분도 있다. 이익은 서문과 발문을 쓰는 과정에서 택리지의 내용을



과약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익이 필사했다라면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못 필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성호본에는 이 외에도 다른 오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익 이외의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결론짓는 것이 마땅하다.

성호본에는 이중환이 범했을 것으로 보이는 일관성 없는 서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익의 편지에서 언급된 산정, 그 이전의 필사본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에서 단언되었던 몇 가지 주장이 근거 없는 추측과 원문에 충실하지 못한 해석으로 이익의 글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못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성호본은 개괄적이고 단순한 수준의 서술로 점철되어 있고 고사가 없어 광문회본이나 동국지리해만큼 흥미롭지 않은 저작임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성호본은 이중환이 처음 쓴 원본의 내용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 VI. 나가며

택리지는 필사본의 종류는 많아도 그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옛 문헌은 아주 적다. 이는 이중환의 문집이 없고 택리지가 그의 유일한 저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희소성 때문에 이익의 글은 택리지 연구에 그 가치가 높는데, 그럴수록 이익의 글들은 보다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익의 서문이 담긴 택리지 필사본을 비교 분석하여 이에 관련된 이익의 글을 재조명해 보았다.

성호본은 이 글에서 처음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었는데 이 글은 택리지 연구에 있어서 성호본이 지니는 가치를 드러내 보여 주기 시작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성호본은 이중환의 저작을 이익이 산정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성호본은 이중환이 처음 쓴 원본의 내용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 결과는 택리지의 원본 추정과 택리지 필사본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는 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할 것으로 사려된다.

## 참고문헌

金約瑟, “星湖手寫本 ‘擇里誌’ 에 對하여” 國會圖書館報 5-4, 1968, 69-75.  
東國地理解, 애산학보 3, 75-163.

吳星, “擇里誌의 八道總論과 生理條에 대한 考察”, 한국고전심포지움 제3집,  
일조각, 1991, 92-117.

하동호, “동국지리해 서지 고”, 애산학보 3, 55-73.

허용, “국문판 ‘택리지’ 의 언어분석”, 애산학보 3, 31-54.

*Yi Chung-hwan's Taengniji: The Korean Classic for Choosing Settlement*,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by Inshil Choe Yoon, Sydney, Wild Peony,  
1998. The University of Sydney East Asian Series, No 12.

Inshil Choe Yoon: "Academic Relationship between Yi Ik and Yi Chung-hwan,"  
*Perspectives on Korea*, Sydney, Wild Peony Pty Ltd., 1998, 164-171.